

# 대출이자 감당도 어려운데 전염병까지...낙농가 고통 가중

### 생산비 폭등에 수익 급감...소 럽피스킨병 급속 확산에 발동동 지난해 젖소 한 마리 당 순수익 152만원...전년비 40% 줄어 원유값 인상에도 적자폭 그대로...전남 낙농가 1년새 27곳 ↓

“대출받은 돈만 4억원에 달해요. 전염병까지 나  
도니 뜯 눈으로 받을 지새웁니다...”  
순천시 낙안면에서 3000평 규모의 젖소 농장을  
운영 중인 김용택(68)씨는 요즘 들어 좀처럼 잠에  
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우유 생산이 가능한 젖소 40마리와 어린  
젖소, 임신 중인 젖소를 포함해 90마리를 사육 중  
이다. 가축이나 사료비 등 운영비가 치솟은 상황에  
최근 소 럽피스킨병까지 창궐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젖소에게 먹이는 풀과 사료 가격은 kg당 대략  
650원 선으로, 90마리 먹이로만 한 달에 2000만원  
이 들어간다고 했다. 김씨는 정부로부터 사료 구매  
자금 2억원과 퇴비를 거름으로 만드는 설비를 위  
해 1억4000만원 등 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  
다.  
김씨는 “젖소에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 거둬들이  
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최근 원유값이 오

른긴 했지만, 농가들의 요구안의 60%에 불과하다”  
고 하소연했다.  
특히 최근 경기·충북·충남·인천 등 전국 곳곳에  
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렙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어 김씨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낙농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로 생  
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유 원유 가격  
은 기대만큼 인상되지 않는 데다 최근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낙농진흥회가 발표한 ‘2023 낙농통계연  
감’에 따르면 지난해 젖소 한마리를 사육하는 데 필  
요한 금액은 913만4469원이었다. 이는 전년  
(828만7088원)보다 10.2% 증가한 액수다.  
반면 지난해 젖소 한 마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021년 243만3534원에 비해 37.2%가 감소한  
152만9136원에 불과했다.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장의 수익성은 더욱 처  
참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축산  
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젖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한 마리당 순이익은  
1000원에 불과했다.  
50마리 이상은 사육해야 겨우 100만원 남짓 손  
에 든다는 얘기다. 소규모 농가일 수록 사육비와 일  
반비가 대규모 농장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우유용 기본 가격을 l 당 996원에서  
1084원으로 88원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낙농가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낙농업계 주장이다.  
전남낙농농협 관계자는 “낙농가는 매년 인상되  
는 우유 원유값으로 전년도 손해를 메우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금액은 낙농가가 주장하는 가격의

60% 수준으로 우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지역 낙농가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전남지역 젖소사육 농가는 447곳  
이었으나 1년 새 27곳(6%)가 감소하며 421곳만  
남았다.  
사육두수도 지난 2021년 1분기까지 3만 마리 수  
준을 유지했으나, 2분기 2만 마릿대로(2만8910)  
내려앉은 이후 줄곧 감소하며 올 3분기 2만7720마  
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선데 달친 격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소 럽피스  
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전에서 감  
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으  
로 발생하고 의심사례가 나오는 등 낙농가의 시름  
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영훈(왼쪽) 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이 24일 시청에서 공공부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공공부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 광주은행과 협약체결...중기 계약대금 안정적 회수 지원 하청업체에 전자대금 결제방식으로 유동성 확보 가능

광주시와 시급고인 광주은행이 공공부문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공공부  
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생결제시스  
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용역·물  
품의 공공구매 때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  
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의 입찰공고에 따라 광  
주은행과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약정·대  
금지급 방법·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  
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

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  
결제 전용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대금 지급  
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대금 결제방식  
이다.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만기일 전 조  
기에 현금화도 가능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품대금 지급 때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  
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행했으며,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  
결제제도도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며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  
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중기중앙회, 중기 TV홈쇼핑 입점 지원

### 방송제작비 무료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TV홈쇼핑(홈쇼핑) 입  
점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발굴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입점 업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MD상담  
·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2024년 상반기 홈쇼핑  
방송에 입점할 예정이다.  
신청기업 중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  
정된 중소기업은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을 제외  
한 홈쇼핑료 1회(50분) 방송제작비용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국내 소재  
소매 생산(제조) 중소기업이며, 최근 1년 이내  
방송입점을 지원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  
출, 접수하면 된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  
업의 홈쇼핑 방송 입점은 매출 상승 뿐만 아니라  
업체와 제품 홍보에도 값진 기회”라며 “우수한 중  
소기업 제품 발굴과 판로지원에 힘쓰겠다”고 말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3.51(+26.49)
↓ 코스닥	784.86(+21.17)
↑ 금리(국고채 3년)	4.004(-0.051)
↑ 환율(USD)	1343.10(-10.60)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정희선(오른쪽) 회장이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에 조성 중인 내움시티의 주거공간인 '더 라인' 구역 내 현대건설 지하터널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 정주영 '중동신화' 정의선이 잇는다

### 현대차그룹, 첨단 신사업 내세워 플랜트·철도 사업 등 잇단 수주 정의선 회장, 사우디 고속·화물 철도 지하터널 건설 현장 방문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중동에서 첨단 신사업을 내  
세우면서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의 '중동신화'  
재현에 나섰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중동  
신화'를 창조한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대차그룹에게 의미가 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  
간)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州)에 조성 중인 '내  
움시티'의 주거 공간인 '더 라인'(THE LINE) 구  
역 내 현대건설 지하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현대건설은 더 라인 구역 하부의 고속·화물철  
도 운행용 지하터널 12.5km 구간을 시공 중이다.  
국내외 다양한 터널 공사 노하우와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정 회장의 현장 방문은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 주요국 사우디의 변화를 직접 둘러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2일 정 회장은 현대차와 사우디 국

부펀드(PIF) 간 '반조립제품(CKD) 공장 합작  
투자 계약'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올해 상  
반기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21%의 점유율로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는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  
에 전기차를 포함해 연간 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또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주요국에서 대형 첨단 플랜트 수주도 잇따  
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로부터 24억달러(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등 대규모 플랜  
트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1년 수주한 자푸라 가  
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1단계를 수행 중이다.  
현대로템 역시 이집트 등에서 철도 사업 수주를  
이어가며 중동에서 입지를 넓히는 중이고, 현대  
제철은 판재, 봉형강, 강관 등 다양한 에너지용 제  
품으로 중동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  
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정 선대회장이 중동신  
화를 창조한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중동 시장  
에서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  
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주영 선대회장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철학과 추진력으로 1970년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중동신화의 주역이 됐다.  
1976년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는 등 중  
동 붐을 이끌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  
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스마트 라이프 제안 삼성전자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  
는 'KES 2023(한국전자전)'에 참가해 연결성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를 선보인다. KES 2023 삼성전자관에서 관람객이 취향과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  
비스포크 가전을 추천 받고 공간을 꾸며보는 '비스포크 홈메이'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원당 할당관세 연장 검토

국제 설량가격과 원당(설량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 관련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원당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4  
일 제당공정인 C.J제일제당 인천 1공장을 찾아 “원  
당 할당관세 적용(3%~0%)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등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제 설량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5% 비싸고,  
설량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은 48% 올랐다.  
최근 설량 가격 상승은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량  
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설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 설량 가격이 국내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  
다. 제당업계 역시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초까지 설량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고 강조했다.  
/연합뉴스